

ISSN: 2092-4836  
한은조사연구 2009-7

# 양안(兩岸)관계 변화과정과 전망

한재현

2009. 7

한국은행 조사국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양안(兩岸)관계 변화과정과 전망

한재현\*

조사국 해외조사실

---

\* 북경사무소 과장 (Tel : 86-10-6505-9877, e-mail : jh2940@bok.or.kr)



## 차 례

### < 요약 >

I. 머리말 .....	1
II. 양안 관계 변화 과정 및 최근 상황 .....	2
1. 대만의 역사 .....	2
2. 양안 관계 발전 단계 .....	4
3. 최근 양안 관계 진전 관련 주요 사건 .....	8
4. 양안의 교류 협력 관계 .....	13
III. 양안 관계 개선의 효과 .....	15
1. 정치적 지정학적 효과 .....	15
2. 경제적 단기 효과 .....	16
3. 경제적 장기 효과 .....	19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22
참고문헌 .....	30



## < 요약 >

- 대만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후 1년여 동안 중국과 대만의 관계(兩岸關係)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대중화경제권의 강화와 여타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양안관계의 변화는 정치적,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외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I. 양안 관계 변화 과정 및 최근 상황

### ( 양안 관계 발전 단계 )

- 1단계 : 군사적 충돌 단계(1949~1978년)
  -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을, 대만은 ‘본토회복’을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 발생
- 2단계 : 평화대치 단계(1979~1986년)
  -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됨

— 3단계: 민간교류 시작단계(1987~1995년)

- 1987.10월 대만거주 대륙 출신자들의 대륙 친척 방문이 시작되었고, 1990.11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1991.12월 중국의 '해협양안 관계협회'가 설립되어 양안간 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재기구로 역할 시작

— 4단계 : 정치적 긴장확대 속 교류 단계(1996~2007년)

- 2000년에는 대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양안관계는 정치적으로 다시 냉각기를 맞게 되었으나 2001년 중국, 2002년 대만의 WTO가입과 대중 경제교류 규제 완화로 투자와 무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

— 5단계: 정치적 긴장완화와 교류 확대단계(2008년 이후)

- 2008.1월 입법원 선거에서 국민당이 전체 의석 113석중 81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되고, 2008.3월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서 양안관계는 다시 화해 국면으로 진입

( 최근 양안관계 진전 관련 주요 사건 )

- 2008.5.28일 국민당의 우보슝(吳伯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59년 만에 처음으로 국공 영수회담을 열고 10년간 중지되어 있던 양안 협상기구 간 대화 재개에 합의

- 2008.6.13일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가 항공,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2차(2008.11.4일), 3차(2009.4.26일)에 걸친 회담 결과 양안간 항공직항 개설(주 270편) 등 다양한 부문에 합의
- 2009.5.18일 대만은 중국의 지원하에 “Chinese Taipei”라는 명칭으로 WHO의 의사결정기구인 WHA에 참관인(observer)자격으로 참가(1971년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잃은 후 38년만의 유엔 산하 기구 개최 회의참가)

### ( 양안의 교류 협력 관계 )

- 대만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수출의 28.9%, 수입의 13.1%를 대중무역이 점하고 있음
- 2008년의 대만 전체 해외투자승인 금액 152억달러 중 대중국 투자 금액이 107억달러에 달하는 등 대만의 전체 해외투자 금액 중 대중국 투자가 60~70%를 차지
- 양안간 상호 방문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 22년(1987~2008년)간 중국 방문 대만인은 5,141만명, 대만 방문 중국인은 238만명으로 집계됨



## II. 양안관계 개선의 효과

### ( 정치적 지정학적 효과 )

-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대만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감소하고, 대만기업들의 중국내 입지도 확대 될 것임
- 긴장 완화에 따라 양안간 각각 명목 GDP의 평균 2%를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의 절감 효과도 기대됨

### ( 경제적 단기 효과 )

- 중국 기업들의 대만에 대한 투자는 대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자산 구성에도 긍정적 영향
- 중국의 대규모 구매 사절단 파견(2009.5.31일의 무역투자촉진단 등)은 실업률 상승, 성장률 저하, 수출 급감으로 고전하고 있는 대만 경제에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금년 1/4분기 대만 경제성장률은 -10.2%, 5월중 실업률은 5.82%로 사상 최악을 기록
- 양안간의 인적교류 확대로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직항로 개설로 인한 여행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
- 중국의 대만관광 자유화가 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6 ~ 0.8%로 추정되고 있음(2008, Goldman Sachs)

- 한편 대중화경제권의 회복 기대로 최근 홍콩과 대만 증시에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최근 양 시장에 유입된 핫머니 규모가 387억달러(홍콩), 153억달러(대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經濟觀察報, 2009.5.25일자)

## ( 경제적 장기 효과 )

- 장기적으로 대중화경제권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아시아 및 세계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2008년 현재 이미 무역액 기준 전세계의 10% 이상, 외환보유액 기준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형성중

- 특히 양안이 '경제협력기구협정(ECFA)\*'을 체결하게 된다면 양 경제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양안경제협력기구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2003년 중국과 홍콩간에 체결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유사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FTA라고 할 수 있는데, 양안은 금년 하반기에 ECFA체결을 위한 본격적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 대만은 중국과의 ECFA체결로 투자보장, 관세감면, 경제협작 등의 성과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유로, 아세안 등 여타 국가와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 금융산업에 대한 상호 투자와 위안화의 자유로운 환전 등으로 양안간 위안화경제권이 형성되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

- 다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와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측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중국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첨단산업의 중국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주식 및 부동산가격 버블 가능성 등의 문제도 발생 가능

###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

- 한국과 대만은 현재 중국 수입시장에서 각각 1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국의 수출품목이 상당수 중복되므로 양안간의 경제통합은 한국의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 상위 20개 품목 중 11개(HS 4분위 기준)가 중복되며, 이들 11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각각 39.6%(한국), 61.1%(대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양안간 ECFA체결을 통해 무관세거래가 시행된다면 상호간 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이 상승하게 되어 한국기업은 2중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음

#### ( 차이완 기업의 영향 )

-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합쳐진 차이완(China+Taiwan)기업이라는 용어가 IT업계를 중심으로 몇 년 전에 등장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한국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아세안 등 시장에서의 경쟁 )

- 중국이 대만과의 협력으로 기술수준을 높여 아세안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과 경쟁할 확률이 높음

## ( 관광산업에의 영향 )

- 현재 매주 100여편을 운행하는 한국-대만간 항공편의 경우 상당수가 중국인의 환승 수요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항로 개설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 향후 전망과 대책 )

- 양안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전자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대만과 중국의 합작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과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음
  - 정국불안정에 따른 ‘대만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ECFA체결로 양안간 경제협력이 제도화 될 경우 대만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유리해지면서 중국 소비시장에서 여타 국가 기업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 정치적 고려로 대만기업에 특혜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바이 차이니즈’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재의 추세 속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인적교류 확대 및 직항로 개설 등으로 한국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 자본의 대만 유입 증가 및 양안간 금융협력 강화로 우리의 동북아 금융·물류 중심지 발전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함

⇒ 향후, 중국과의 FTA추진, 대만기업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중국내수시장 개척,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양안간 ECFA체결로 경제통합이 가속화 될 경우, 제1의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FTA체결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물류·서비스·금융 등 우리가 대만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수준 제고 및 적극적인 중국내수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며,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나 합작 관계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아세안 및 중동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간지)

## I. 머리말

□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온 대만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지난 5.20일 취임 1주년을 맞음

— 중국과의 경제협력확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으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대중화경제권\*의 강화와 여타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 증가가 예상됨

\* 대중화(大中華, The Greater China)경제권 : 좁은 의미로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경제권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아세안까지 포괄하여 전 세계에 분포된 화교네트워크 경제권 의미. 1980년대초 홍콩 학자 '황권연'의 미래학 저서에서 최초 제기되었다는 설도 있고,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대학의 '鄭作園' 교수가 최초 제기했다는 설도 있음

—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혹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과의 관계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자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분리, 후자는 상호간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두 정부의 대등한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함

○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해협양안관계(海峽兩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혹은 양안관계로 호칭

⇒ 양안관계의 변화는 정치적,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외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II. 양안 관계 변화 과정 및 최근 상황

### 1. 대만의 역사

□ 중국 대륙에서 약 15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대만(臺灣, 타이완)은 17세기부터 서구 열강의 침략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 역사의 격변을 겪어 옴

- 1624~1662년 : 스페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네덜란드가 지배
- ~1683년 : 反淸復明 지도자 중 한사람이었던 鄭成功이 푸젠성(福建省)주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고 정씨 왕조를 개창하여 반청 운동의 기지로 삼음
- ~1895년 : 정씨 왕조를 무찌른 淸이 1684년 대만을 푸젠성으로 복속시키면서 지배 시작
- ~1945년 : 1895년 청일전쟁후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할양되어 이후 일본 패전시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음(일본의 최초 해외식민지)
- ~1949년 : 본성인(本省人, 17세기 이후 해방전까지 대만에 정착한 한족)과 외성인(外省人, 해방이후 대만에 정착한 한족)과의 갈등시기
- 1949년 이후 :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이전하면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성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과 대립 시작



□ 대만은 1949.5월 이후 1987.7월까지 계엄령 하의 국민당 일당독재 국가로 정치적 억압을 겪었으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압도했음

— 그러나, 1971년 중국이 UN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중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에 따라 점차 대만은 세계 외교무대에서 고립되는 길을 겪게 되었고 현재 수교 국가는 20여개에 머무르고 있음

\*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비롯한 어떤 공식적 관계도 수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도 1992.8월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

## 2. 양안 관계 발전 단계

### □ 1단계 : 군사적 충돌 단계(1949~1978년)

-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을, 대만은 ‘본토회복’을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 발생
- 대표적인 사건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섬인 진먼도(金門島)에서 발생했던 진먼도 전투(1949.10월)와 진먼포전(8·23砲戰, 1958.8월)

### □ 2단계 : 평화대치 단계(1979~1986년)

- 1979년 중·미 수교 이후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게 됨
- 1979.1.1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통해 군사대결 및 분열상황의 종식과 이를 위한 쌍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의 우편(通郵), 항공(通航), 통상(通商) 분야에 있어서 상호 개방을 의미하는 ‘3통’ 제의
-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은 대만, 홍콩, 마카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방안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제의

- 1985년 대만은 중국의 3통 정책에 대해 3불정책\*으로, 1988년에는 3불원칙\*\*으로 대응

\* 3불정책 : 대만은 중국정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담판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음

\*\* 3불원칙 : 직접 중국과 통상하지 않고, 직접 중국과 외환거래를 하지 않으며, 대만기업이 직접 중국과 접촉하지 않음

#### □ 3단계: 민간교류 시작단계(1987~1995년)

##### — 대만의 민주화 가속 및 양안간 교류 협력의 제도화 추진 시기

- 1986년 대만 야당인 '민진당' 설립과 1987년 계엄령 해제로 대만의 민주화 가속
- 1987.10월 대만거주 대륙 출신자들의 대륙 친척 방문 허용 조치
- 1990.11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Straits Exchange Foundation)', 1991.12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가 설립되어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지닌 두 기구\*가 양안간 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재기구로 역할 시작

\* 상호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양안이 이를 우회하면서 관련 문제를 토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명목상은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만 행정원 소속의 '대륙관공처'와 중국 국무원 소속의 '대만판공처'에 의해 주도됨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만기업 우대 정책으로 대만의 대중 무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1994년 발표된 ‘중화인민 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이 대표적인 예

#### □ 4단계 : 정치적 긴장확대 속 교류 단계(1996~2007년)

— 정치적 긴장 국면 속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시기

-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와 ‘兩國論’을 계기로 양안관계는 긴장국면으로 돌입
-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으로의 편향적 투자를 제한하고 동남아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 자본금에 따른 투자 상한선 설정이 대표적. 자본금 50억 대만달러 미만의 기업은 순자산의 40%, 50억~100억 대만달러 미만의 기업은 30%, 100억 대만달러 이상의 기업은 20% 이상의 투자를 금지

- 2000년 대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양안관계는 정치적으로 다시 냉각기를 맞게 되었으나 2001년 중국, 2002년 대만의 WTO가입과 대중경제교류 규제 완화로 투자와 무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
- 2005.3월 중국은 반분리법(Anti-Secession)을 통과시키면서,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해 ‘비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2005.4월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국민당 리엔잔(連戰) 명예주석이 회동하면서 정치적 해결 노력도 병행(소위 제3차 국공합작)

□ 5단계: 정치적 긴장완화와 교류 확대단계(2008년 이후)

— 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긴장완화와 교류 급증 단계

- 2008.1월 입법원 선거에서 국민당이 전체 의석 113석중 81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되고, 2008.3월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면서 양안관계는 다시 화해 국면으로 진입
- 마 총통은 중국과의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간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新3불원칙’을 표방하면서 독립, 통일 논의보다는 경제교류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

### 3. 최근 양안 관계 진전 관련 주요 사건

#### □ 양안관계 진전의 전제 : 1992 Consensus(九二共識)

- 이는 현재의 양안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 어휘로, 양안간 상호 체제에 대한 해석 틀을 의미
  - 양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에 따라 ‘오직 하나의 중국(only one China)’이라는 개념에 동의하나 그 해석은 달리한다는 것. 즉, 각각의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고유의 해석

#### □ 2008.3월의 대만 정권 교체 이후 양안간 정치, 경제 방면의 다양한 회담과 교류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 2008.4.12일 대만 부총통 당선자였던 샤오완창(蕭萬長)이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회담
- 2008.4.29일 후진타오 주석, 옛 친구이기도 한 리엔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을 만나면서 ‘상호신뢰관계수립, 쟁점사안유보, 상호간 다양성존중, 공동번영추구’를 함축하는 16자 방침 제기
- 2008.5.28일 대만 집권당인 국민당의 후보승(吳伯雄)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과 베이징에서 59년 만에 처음으로 국공 영수회담을 열고 10년간 중지되어 있던 양안 협상기구 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
- 2008.6.12일 대만 의회,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양안인민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위안화 환전을 합법화

- 2008.6.13일 양안간 협상 창구인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가 항공,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3차에 걸친 회담 결과 다양한 후속 조치에 합의

#### 양안회담 주요 합의 내용

일자	분야	주요 내용
1차 2008.6.13	항공	양안 항공직항 개설(주 36편)(종전에는 4대 명절에만 직항이 허용되고 여타 기간에는 홍콩, 마카오 등 제3국을 우회한 입국만 허용) 중국 5개, 대만 8개 직항공항 개방
	관광	중국인의 대만관광 일일 허용인원이 종전의 1,000명→3,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장 10일의 체류 허용
2차 2008.11.4	항공	양안 항공직항 36편→108편으로 증편 항공직항운항을 주말(금~월 4일)에서 평일(7일)로 확대 중국 16개 공항 추가개방으로 총 21개 개방
	해운	중국 및 대만국적 선박에 대한 해운 직항운항 허용 및 양안해운사업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중국 63개 항구, 대만 11개 항구 개방
	우편	서신, 소포, 택배 직접 왕래
	식품안전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쌍방간 즉시통보 및 긴급 협상 가해자에 대한 수습책임 독촉과 피해자 권익 보호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공동 감독시스템 구축 점진적인 상호간 화폐결제시스템 구축 중국의 대만내 투자 확대를 위한 연락체계 마련
3차 2009.4.26	항공	양안 항공직항 108편→270편으로 증편 중국 6개 공항 추가개방으로 총 27개 개방
	범죄수사	주요범죄 수사 공조체계 구축 및 협력

- 2008.12.4일 대만 행정원, 대만의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을 중국 기관투자자들(QDII)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

- 2008.12.21일, 제4차 양안경제논단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안 공동대처 10개 방안’ 발표
  - 재중국 대만기업에게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국가개발은행이 총 1,300억위안을 융자하고, 대만기업의 LCD 20억달러어치 구매 등
- 2008.12.31일 후진타오 주석이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30주년 기념좌담회에서 하나의 중국 염수 및 정치적으로 상호간 믿음 증진, 경제협력추진과 공동발전촉진, 각계 교류 확대 등의 ‘후진타오 6가지 의견(胡錦濤六點意見)’제시
- 2009.5.1일 대만 금융감독원, 양안간의 금융협력 발표
  - 중국 투자자들의 대만 money market에 대한 투자를 1949년 이후 최초로 허용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은 대만기업 시가총액의 10% 미만의 투자가 가능하게 됨(단, 10% 초과시는 대만경제부의 승인 필요)
  - 중국의 China Mobile사가 5.29억달러를 투자하여 대만 세 번째 규모의 통신 업체인 Far EasTone의 주식 12% 매입
- 2009.5.4일 중국 국무원, 대만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만해협 서안인 푸젠(福建)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해협서안(海峽西岸)경제구’건설안 발표
  - 이에 따라 해협서안경제구는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환보하이(環渤海)경제권에 이어 중국 제4의 경제성장축으로 개발될 전망(<붙임> 참조)



— 2009.5.16일 제1회 해협포럼에서 중국국무원 대만판공처 왕이(王毅) 주임,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8개 구체방안 제시

분야	주요 내용
중국 기업의 대만투자 촉진	전자, 통신, 생물의약, 해양운수, 공공건설, 유통, 방직, 기계, 자동차제조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대만 투자 촉진
중국, 대만 상품 구입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과일, 야채, 수산물 등 농수산물 구매와 5,6,7월 세 차례에 걸쳐 일상용품, 식품가공품 등 공산품 구매를 위한 사절단 파견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 촉진	대만 기업의 중국내 인프라스트럭처 등 주요 건설 사업 지원 등
중국인들의 대만 여행 장려	올해 60만명 이상이 대만을 여행할 수 있도록 장려
경제협력기구협정체결 노력	공식화된 경제협력기구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수립에 노력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협의 시작
전문자격증 시장 일부 개방	회계사, 환경영향평가사, 기업법률고문 등 11개 전문 부문 자격증 시험을 대만인에게 허용
농업협작	기존의 11개 농업협작사 외에 4개 추가 설립
법률서비스 일부 개방	대만법률회사들이 푸저우, 샤먼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양안 경제협력기구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2003년 중국과 홍콩간에 체결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유사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FTA로서

FTA가 주권국가나 국제기구간에 체결되는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CEPA는 비조약적 성격의 기관간에 체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예: 중국과 홍콩간의 CEPA는 중국의 상무부와 홍콩의 재정국간에 체결)

- 2009.5.18일 대만은 12년간의 노력 끝에 “Chinese Taipei”라는 명칭으로 WHO의 의사결정기구인 WHA(World Health Assembly)에 참관인(observer)자격으로 참가
  - 대만으로서 1971년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잃은 후 38년만에 유엔 산하 기구 개최 회의에 최초로 참가하게 된 셈이며, 이는 중국의 적극적 후원하에 가능했던 일임
- 2009.5.26일 대만 국민당의 우보슝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및 문화 교류 관련 협의
  - 중국측이 정치 및 군사 문제에 대한 대화를 제의하였고, 2009년 하반기에 ECFA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문화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산당-국민당 포럼을 2009.7월에 후난성 창사에서 개최하기로 함
- 2009.5.31일 Haier, Hisense, Lenovo, Midea 등 주로 “가전하향” 입찰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 “무역투자촉진단”이 대만으로 파견됨
  - 주로 컴퓨터, 휴대폰, LCD, 메모리, 3G 등 관련 부속품 및 공작 기계 등을 구매하였으며 구매액은 약 8.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
- 2009.6.4일 대만 행정원, 중국 투자가들의 대만기업 투자 개방 항목 발표
  - 5.1일의 양안간 금융협력의 세부 조치로, 중국 투자가들이 투자 가능한 대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 등 총 100개 산업 부문 항목 발표 (6.1일부터 시행)

#### 4. 양안의 교류 협력 관계

##### ( 무역 )

— 대만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수출의 28.9%, 수입의 13.1%를 대중무역이 점하고 있음

- 또한, 2008년도 전체 무역수지 흑자(151.8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중무역수지 흑자(425.6억달러)를 기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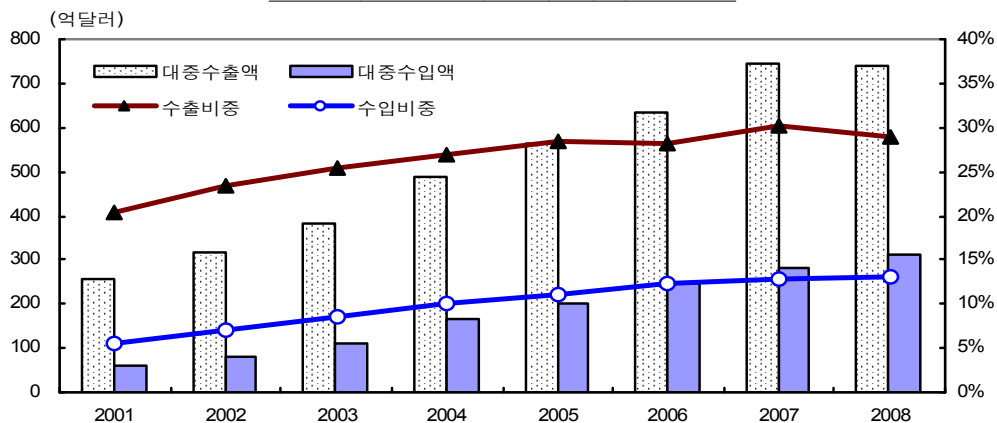
대만의 대중 수출입 비중

(단위 : 억달러, %)

연도	총수출	대중수출	비중	총수입	대중수입	비중	전체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2001	1263.1	256.1	20.3	1079.7	59.0	5.5	183.4	197.0
2002	1353.2	315.3	23.3	1132.5	79.7	7.0	220.7	235.6
2003	1506.0	382.9	25.4	1280.1	110.2	8.6	225.9	272.7
2004	1823.7	489.3	26.8	1687.6	167.9	10.0	136.1	321.4
2005	1984.3	562.7	28.4	1826.1	200.9	11.0	158.2	361.8
2006	2240.2	633.3	28.3	2027.0	247.8	12.2	213.2	385.5
2007	2466.8	742.5	30.1	2192.5	280.2	12.8	274.3	462.3
2008	2556.3	739.8	28.9	2404.5	314.2	13.1	151.8	425.6

자료 : CEIC

대만의 대중 수출입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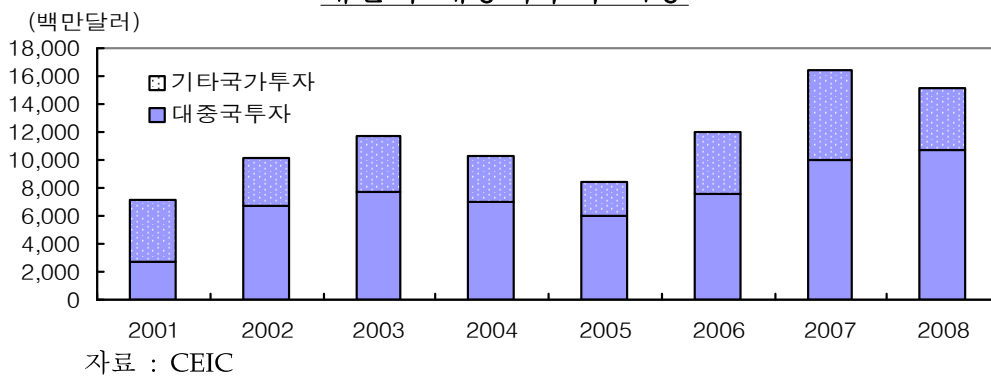


## ( 대만의 대중국 투자 )

— 대만의 전체 해외투자승인 금액 중 대중국 투자가 60~70%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 비중을 차지

○ 2008년의 경우 전체 해외투자승인 금액은 152억달러였고, 대중국투자승인 금액은 107억달러였음

**대만의 대중국투자 비중**



## ( 인적교류 )

— 양안간 상호 방문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 22년 (1987~2008년)간 중국 방문 대만인은 5,141만명으로, 대만 방문 중국인은 23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양안간 방문객수**

연도	(명)	
	대만 → 중국	중국 → 대만
2002	3,660,565	157,770
2003	2,730,891	134,811
2004	3,685,250	139,344
2005	4,190,188	172,982
2006	4,413,470	243,185
2007	4,627,881	320,128
2008	4,385,591	283,169
1987~2008	51,410,559	2,381,284

자료 : [www.mac.gov.tw](http://www.mac.gov.tw)

### Ⅲ. 양안 관계 개선의 효과

#### 1. 정치적 지정학적 효과

- 최근, 마잉주 대만 총통이 국민당 주석직을 9월부터 겸임하고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될 것임
-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대만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감소하고, 대만기업들의 중국내 입지도 확대 될 것임
- 긴장 완화에 따라 양안간 각각 명목 GDP의 평균 2%를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의 절감 효과도 기대됨

중국과 대만의 2008년 추정 국방비

	중국	대만	비고(한국)
국방비(억달러)	636	95	238
국방비/명목GDP(%)	2	2	2.6

자료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 다만, 아직까지 대만 내에서 ‘통일파’와 ‘독립파’의 여론 대립이 심각하므로 마 총통이 국민당 주석직을 겸임하게 되면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 2. 경제적 단기 효과

— 중국 기업들의 대만에 대한 투자는 대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자산 구성에도 긍정적 영향

○ 중국의 대규모 구매 사절단 파견은 실업률 상승, 성장률 저하, 수출 급감으로 고전하고 있는 대만 경제에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금년 1/4분기 대만 경제성장률은 -10.2%, 5월중 실업률은 5.82%로 지난 1978년 월별 실업률을 조사한 이래 사상 최악을 기록

### 대만의 최근 수출주문량(%)

'08.11	12	'09.1	2	3	4월
-28.5	-33.0	-41.7	-22.3	-24.3	-20.9

— 3통\* 실시로 인한 대만과 중국의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도 증대

\* 우편(通郵), 항공(通航), 통상(通商) 분야의 상호 개방

○ 특히, 올해에는 양안간 정기직항로 개설로 대만 방문 중국인 수가 2008년의 두 배를 초과하는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양안간 직항로 개설 이후 대만 방문 중국인 수는 6월 중순 현재 35.7만명을 돌파(인민일보 2009.6.28일자)

○ 중국의 대만관광 자유화가 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6 ~0.8%로 추정되고 있음(2008, Goldman Sachs)

— 직항로 개설로 인한 여행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

- 상하이와 타이베이간 여행의 경우, 홍콩을 경유하던 기존 비행 시간 5~6시간이 1시간 반~2시간으로 단축되며 비용도 약 3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만 항공 업계에서는 항공사 및 여행객의 시간 및 경비절감 규모가 연간 30억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오키나와 등 중간지점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양안간 직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15~30%의 운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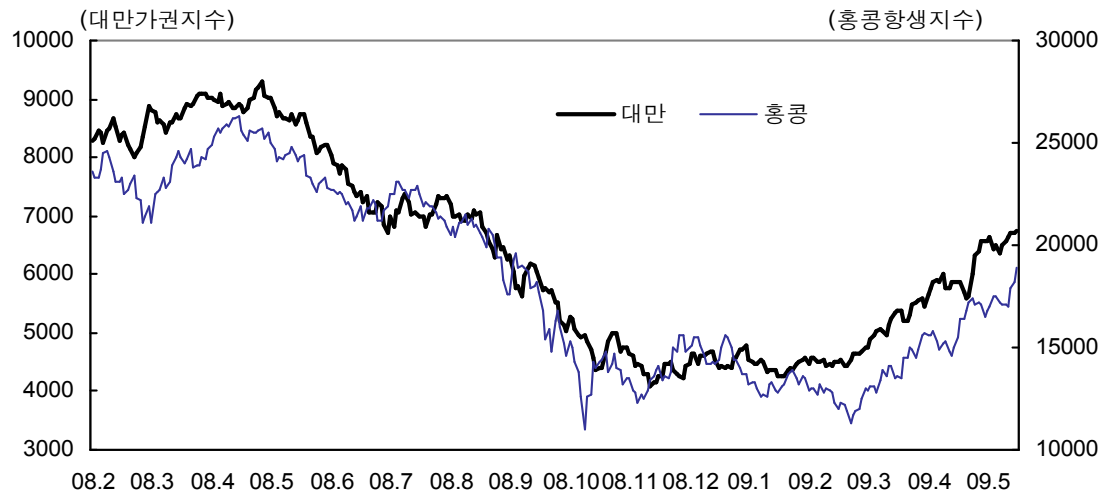
—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촉진책에 따라, 주문자에 종속되기 마련인 OEM방식 이외에 내수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중화경제권의 회복 기대로 최근 홍콩과 대만 증시에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최근 양 시장에 유입된 핫머니 규모가 387억달러(홍콩), 153억달러(대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經濟觀察報, 2009.5.25일자)

- 이는 중국 경제의 회복과 연계된 대만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대만 증시의 경우 연초 대비 46.3%가 상승하여 아시아 증시중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2009.5.21일 기준)

## 대만 및 홍콩 증시 주가지수 현황





### 3. 경제적 장기 효과

- 장기적으로 대중화경제권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아시아 및 세계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2008년 현재 이미 무역액 기준 전세계의 10% 이상, 외환보유액 기준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형성중

**대중화경제권의 규모**  
(2008년)

(단위 : 만km<sup>2</sup>, 억명, 억달러)

	대중화경제권(A)					전세계(B)	비중(A/B)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계		
면적	960	3.6	0.1	0.003	964	14,894	6.5
인구	13.3	0.2	0.07	0.005	13.6	66.7	20.4
GDP	43,963	3,913	2,156	218	50,250	606,898	8.3
수출	14,285	2,556	3,647	21	20,509	162,800	12.6
수입	11,331	2,404	3,907	56	17,698	162,100	10.9
외환보유액	19,460	2,917	1,825	-	24,202	72,165	33.5

자료 : CEIC, 중국국가통계국, IMF, The World Factbook(CIA)

- 특히 양안이 경제협력기구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면 양 경제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대만은 2008년말 현재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남미 5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0.19%에 불과하여 지극히 미미한 실정

- 따라서, 대만은 중국과의 ECFA체결로 투자보장, 관세감면, 경제  
협작 등의 성과를 이루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 유로,  
아세안 등 여타 국가와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 \* 지난 2001년 대만과 FTA를 추진하던 싱가포르는 대만 명칭 문제와 관  
련한 중국의 압력으로 이를 중단한 바 있음(대만은 '中華民國'이나 '臺  
灣'의 사용을, 중국은 '차이니즈타이페이'나 '대만관세지역'등을 주장)
- 또한,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화'의 물결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도 내포
- 2003.6월 중국과 CEPA를 체결한 홍콩이 1998년~2003년의 불황을  
극복하고 이후 연평균 5~8%의 고성장세로 돌아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2007, IMF)하는 것도 대만이 중국과의  
ECFA체결에 적극적인 이유임
- 중국 입장에서는 2003.6월 홍콩, 2003.10월 마카오와의 CEPA  
체결에 이어 대만과도 이를 체결하여 명실상부한 대중화경제권  
수립을 완성한다는 전략
- 금융산업에 대한 상호 투자와 위안화의 자유로운 환전 등으로  
양안간 위안화경제권이 형성되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도 탄력  
을 받을 전망
- 비록 6.4일 대만 행정원의 발표에서는 금융산업 투자 개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이는 양안 금융감독기구간 정식 MOU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와의 정치적, 경제적 긴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측화 정도가 높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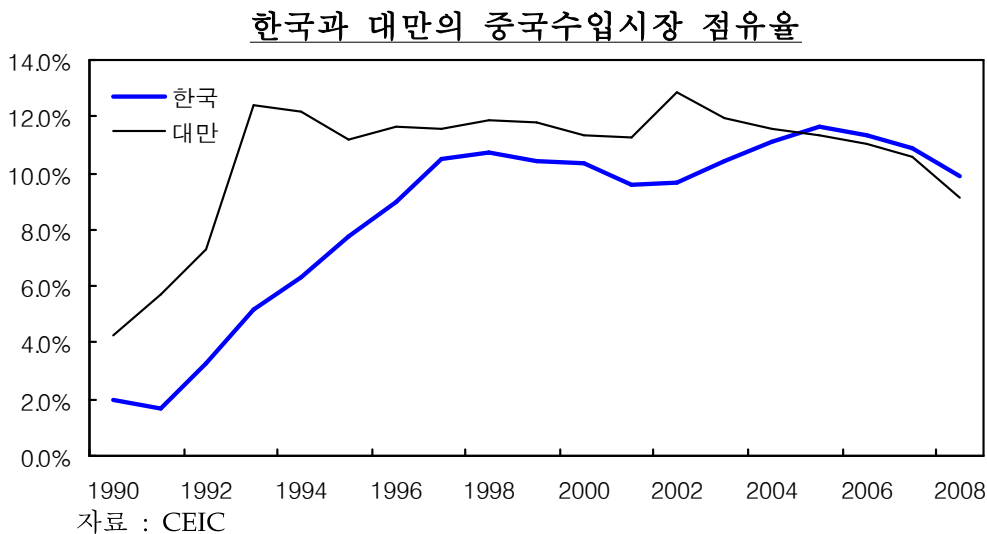
중국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첨단산업의 중국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주식 및 부동산가격 버블 가능성 등의 문제도 발생 가능

○ 대만 내의 이러한 불안을 알고 있는 마잉주 총통은 작년 총통 유세기간 중 ‘대등한 협상’, ‘중국 농산물 수입품목의 현수준 유지’, ‘중국 노동력 수입 금지’ 등을 중국과의 ECFA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천명

##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

-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2005년도에 대만을 추월한 이후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각각 1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양국의 수출품목이 상당수 중복되므로 양안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 상위 20개 품목\* 중 11개가 중복되며, 이들 11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각각 39.6%(한국), 61.1%(대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4분위상의 상품분류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 상위 20개 품목중 중복품목**  
(2008년)

품목	(단위 : 억달러, %)	
	한국	대만
액정디바이스 및 기타 광학기기	105	185
석유와 역청유 등	77	30
전자집적회로	64	295
전화기 및 기타 음성 등 기기	60	8
환식탄화수소	33	14
폴리카르복시산 등	32	18
타자기 및 기타사무용기계 부속품 등	24	16
프로필렌 중합체 등	13	8
모니터와 텔레비전 송수신용 기기 부분품 등	13	8
스티렌의 중합체	12	22
인쇄회로	11	27
11개 품목 합계	444	631
11개품목 수출액/전체수출액	39.6	6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또한, 양안간 ECFA체결을 통해 무관세거래가 시행된다면 상호 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이 상승하게 되어 한국기업은 2중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음

○ 중국과 홍콩과의 CEPA체결로 당시 홍콩 제품은 외국산 제품에 비해 3~35%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력이 강화된 바 있음

\* 2008년 대만평균관세 5.7%, 중국평균관세 9.8%(대만경제부)

## ( 차이완 기업의 영향 )

—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합쳐진 차이완(China+Taiwan)기업이라는 용어가 IT업계를 중심으로 몇 년 전에 등장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한국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7년 기준으로 컴퓨터 메인보드의 90%이상, 노트북 PC의 80%이상, LCD모니터의 70% 이상을 대만기업들이 OEM방식으로 생산하면서, 대만의 IT기업 생산력은 이미 입증된 바 있음
- 애플, 소니, 휴렛팩커드, 델, 노키아 등의 주요 제품을 모두 대만기업이 생산하는데, 현재 대만 본사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중국 공장은 생산을 담당하는 체제임
- 대만의 과학기술산업과 중국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경험이 합쳐지고 양안간 체계적인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런 협공으로 한국의 IT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대만경제일보 6.1일자)
- 중국시장에서의 LCD패널 판매량의 경우 2008년 한국 46.2%, 대만 35%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데 반해, 2009년 1/4분기는 한국 29.7%, 대만 56.5%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China Daily 6.4일자)

이는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의 효과를 대만업체들이 입고 있으며, 비슷한 품질에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만 업체의 제품을 중국 가전제품 기업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증거

-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Zhang Guanhua 부주임도 대만 상품 특히 패널(panel), 반도체(semiconductor), 전자기기(electronics) 등의 제품은 경쟁력이 있으므로 중국 기업들은 이들 제품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대만에서 구매하는 것이 비용-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China Daily 6.2일자)

### ( 아세안 등 시장에서의 경쟁 )

- 일부 학자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양안 4대 공동시장’을 건설한 후 대만이 ASEAN에 가입하여 아세안 시장 공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도 대만과의 협력으로 기술수준을 높여 아세안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과 경쟁할 확률이 높음

### ( 관광산업에의 영향 )

-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3통 실현으로 대만 및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객수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매주 100여편을 운행하는 한국-대만간 항공편의 경우 상당수가 중국인의 환승 수요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항로 개설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가능성 존재
- \* 2007년 제주도 방문 대만 관광객 중 약 60%가 제주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집계됨

### 2008년 중국 및 대만의 한국 방문객 수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계	2007년	성장률	구성비
대만	310,545	525	152	738	8,284	320,244	335,224	-4.5	4.6
중국	417,593	172,153	1,851	75,822	500,472	1,167,891	1,068,925	9.3	16.9
전체	4,641,804	325,409	36,464	98,952	1,788,212	6,890,841	6,448,420	6.9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 ( FDI에의 영향 )

- 양안 지역의 대 한국 FDI 규모가 미국, 일본 등 여타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FDI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FDI 규모(신고기준, 1962~2007년중)

국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중국	대만	전체
금액(억달러)	390	205	158	68	22	9	1,373
비중(%)	28.4	14.9	11.5	4.9	1.6	0.7	100.0

자료 : CEIC

### ( 향후 전망과 대책 )

- 양안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전자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대만과 중국의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과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음



- 정국불안정에 따른 '대만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ECFA체결로 양안간 경제협력이 제도화 될 경우 대만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유리해짐에 따라 중국 소비시장에서 여타 국가 기업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 정치적 고려로 대만기업에 특혜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바이 차이니즈'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재의 추세 속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인적교류 확대 및 직항로 개설 등으로 한국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 자본의 대만 유입 증가 및 양안간 금융협력 강화로 우리의 동북아 금융·물류 중심지 발전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함
- ⇒ 향후, 중국과의 FTA추진, 대만기업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중국내수시장 개척,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양안간 ECFA체결로 경제통합이 가속화 될 경우, 제1의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FTA체결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전체 수출액 대비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21.7%(2008년)

- 물류·서비스·금융 등 우리가 대만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수준 제고 및 가격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나 합작 관계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 양안관계의 개선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도 중요함

- 월마트는 태국의 화교기업(Charroen Pockphand)과 합작하여 중국 유통업에 진출하였고, 특히 중국의 문구, 엔터테인먼트 시장 등은 대만이나 홍콩 제품이 여타 다국적기업 제품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아세안 및 중동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아세안 지역의 경우 풍부한 인구와 천연자원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제2의 EU를 추구하는 지역으로 중국은 FTA추진을 통한 ‘대중화경제권’을, 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한 ‘대동아경제권’ 구축을 지향하는 지역임

- 일본은 과거 역사로 인해, 중국은 거대 경제권에 흡수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은 이들 두 나라에 근본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과 협력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붙임>

### 중국의 주요 경제성장축



## 참고문헌 및 자료

- 문홍호, "더욱 가까워지는 중국과 대만", Chindia Journal, 2008.11
- 박변순, "중-대만 관계 개선과 대중화경제권 형성", 삼성경제연구소, 2008.4.21
- 박현정, "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4.15
- 이봉걸, "최근 양안관계 개선 전망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09.2.25
- 임수호·동용승,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2007.8
- 정덕구, "거대 중국과의 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4.12
- 한국무역협회, "중국 '해협서안경제구' 현황 및 시사점", 2009.6.9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홍콩주재원, "대만, 본토 관광객 입국 확대 및 위안화 환전 허용", 2008.6.13
- 財經, "兩岸經貿, 兩種選擇", 2008.3.19
- 台灣經濟部, "推動兩岸經濟合作架构協議 (草案)", 2009.3.19
- 中國金融網, "促進兩岸經貿合作 國台辦宣布八項惠台新政策", 2009.5.18
- 中國經濟網, "島內金融業登陸布局", 2009.5.21
- Alan D.Romberg, "Cross-Strait Relations:First the Easy, Now the Hard", China Leadership Monitor, No.28, Spring 2009
- China Daily, "Hu powers Cross-Straits talks", 2009.5.27
- \_\_\_\_\_, "Cross-Straits relations grow stronger", 2009.6.9
- Goldman Sachs, "Taiwan : Perspective on sustaining the 'game changing' cross-strait development ", 2009.5.21
- \_\_\_\_\_, "Taiwan Views : The government finalized a first list of sectors to be opened to Chinese investment", 2009.6.5

- ▷ 2008-1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조사국, 2008.1>
- ▷ 2008-2 최근의 미국 경기상황과 평가<권성태·윤창준, 2008.2>
- ▷ 2008-3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확대 영향 및 시사점<고용수·이주연, 2008.2>
- ▷ 2008-4 고유가시대의 장기화 : 가능성과 영향<신원섭·안상준, 2008.2>
- ▷ 2008-5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이병희·강기우, 2008.2>
- ▷ 2008-6 철강산업의 주요 특징과 향후 과제<정종인·김영민, 2008.2>
- ▷ 2008-7 세계경제 불균형의 재확대 가능성과 리스크<신원섭·박용진, 2008.2>
- ▷ 2008-8 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권효성, 2008.3>
- ▷ 2008-9 주택가격의 추이와 지역간 파급여부 분석<최영준·손창남·조강철, 2008.4>
- ▷ 2008-10 유가상승충격의 요인분해와 향후 전망<황상필·김민수, 2008.4>
- ▷ 2008-11 미국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향후 전망<신원섭·박용진, 2008.4>
- ▷ 2008-12 금융증권화의 리스크와 대응방향<김훈·신현열·유종민·김보성, 2008.4>
- ▷ 2008-13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정후식, 2008.5>
- ▷ 2008-14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이병희·강기우, 2008.5>
- ▷ 2008-15 우리 경제의 투자여력에 대한 평가<이홍직·이상호, 2008.6>
- ▷ 2008-16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병희·강기우, 2008.6>
- ▷ 2008-17 주요국 법인세 인하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정욱·임근형·문지희, 2008.7>
- ▷ 2008-18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와 시사점<손창남·조강철, 2008.7>

- ▷ 2008-19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최요철·배성중, 2008.7>
- ▷ 2008-20 최근 일본의 유가 상승 충격 완화 원인<고용수·김진홍, 2008.8>
- ▷ 2008-21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김민우·노원중, 2008.8>
- ▷ 2008-22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황문성·박종현, 2008.8>
- ▷ 2008-23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정후식, 2008.8>
- ▷ 2008-24 미국의 최근 경제상황과 과거 침체기 비교<권성태, 2008.8>
- ▷ 2008-25 자원부국과의 교역추이와 과제<안상준·안동준, 2008.8>
- ▷ 2008-26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평가<최영일·오금화, 2008.9>
- ▷ 2008-27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김진용·노원중, 2008.9>
- ▷ 2008-28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이병희·강기우, 2008.10>
- ▷ 2008-29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방안<전광명·노원중, 2008.11>
- ▷ 2008-30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가 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재량, 2008.11>
- ▷ 2008-31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효율성에 미친 영향<최준환, 2008.12>
- ▷ 2008-32 신용과생상품시장의 현황과 과제<김인규·오종민, 2008.12>
  
- ▷ 2009-1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이병희·문제철, 2009.1>
- ▷ 2009-2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정후식, 2009.1>
- ▷ 2009-3 G-20 정상회의 실천과제 관련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질서 개선방안<임호열 외, 2009.2>
- ▷ 2009-4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손창남, 2009.2>
- ▷ 2009-5 우리나라의 M&A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황문성·강기우, 2009.2>
- ▷ 2009-6 최근 영국의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영방식 개편과 시사점<박진호, 2009.3>

# 한 은 조 사 연 구

---

2009년 7월 8일 인쇄 · 7월 9일 발행

발 행 인 이 성 태  
편 집 인 이 상 우  
발 행 처 한 국 은 행 조 사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인 쇄 인 이 승 희  
인 쇄 처 서 원 기 업 주 식 회 사

---

- ▣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집필자명’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책자의 내용은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bok.or.kr>)의 「조사·연구자료/간행물/수시/한은조사연구」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